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 영 복

2018년 8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고 영 복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고영복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문초록>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고 영 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중도탈락 의도를 낮추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교 1~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831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로미결정, 중도탈락의도,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하여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미결정, 중도탈락의도,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검토하였으며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자기조절학습능력, 중도탈락의도의 변인간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진로미결정 전체와 중도탈락의도 전체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진로미결정 전체와 자기조절 학습능력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중도탈락의도 전체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위(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은 중도탈락의도 전체에 정적상관을 보였고,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위(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조절회귀분석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진로미결정 중 직업정보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진로미결정 중 자기명확성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진로미결정 중 우유부단한 성격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진로미결정 중 필요성인식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이 중도탈락의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를 낮추기 위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학습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학습전략을 발달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진로미결정, 중도탈락의도, 자기조절학습능력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3. 연구 모형	4
4. 용어의 정의	5
1) 진로미결정	5
2) 중도탈락	5
3) 자기조절학습능력	6
II. 이론적 배경	7
1. 진로미결정	7
2. 중도탈락의도	10
3. 자기조절학습능력	11
4. 변인들 간의 관계	14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측정 도구	18
1) 진로미결정 척도	18
2) 중도탈락의도 척도	19
3)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	20
3. 자료처리 및 분석	21
IV. 연구결과	22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22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23
3.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25
1)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26
2)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 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27
3) 진로미결의 하위변인인 자기명확성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 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29
4) 진로미결의 하위변인인 우유부단한 성격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 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31
5) 진로미결의 하위변인인 필요성인식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 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33
V. 논의 및 결론	36
VI. 참고문헌	39
Abstract	45
부록(설문지)	48

표 목 차

표 II-1.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개념	12
표 II-2.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구성요인	13
표 III-1.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및 분포	16
표 III-2. 진로미결정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19
표 III-3. 중도탈락의도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20
표 III-4. 자기조절학습능력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21
표 IV-5. 특정변인의 기술 통계량	23
표 IV-6.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간 상관계수	24
표 IV-7.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26
표 IV-8. 직업정보 부족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28
표 IV-9. 자기명확성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30
표 IV-10. 우유부단한 성격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32
표 IV-11. 필요성인식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34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모형	4
그림 IV-2.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27
그림 IV-3. 직업정보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	29
그림 IV-4. 자기명확성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	31
그림 IV-5. 우유부단한 성격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	33
그림 IV-6. 필요성인식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주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학업과 진로문제이고, 학업과 진로문제에 대해 고민을 가지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입학과 동시에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지만 대학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김수영, 배성아, 2014). 대학생들의 주된 고민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조사결과와 학생 상담소에 찾아오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진로문제로 상담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현상을 지지하고 있다(김혜은, 이옥희, 2010; 김나래, 2013).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합리적 선택 능력이 부족한 채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에서도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래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졸업을 하거나 상황에 쫓겨 진로를 정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장래 미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남아란, 하정, 2012).

진로미결정이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진로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거나(Crites, 1981; 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재인용) 혹은 진로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마주치는 어려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Chartrand, Rose, Elliot, Marmarosh, & Caldwell, 1993; GATI, Krauz & Osipow, 1996, 재인용). 박선희와 박현주(2009)는 진로를 결의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의한 동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정체감에 대해서도 위기를 체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상태는 인생의 방향 설정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로 및 취업준비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아낌없이 많이 보내야 한다(송지은, 이정윤, 2013). 선행연

구를 종합하면, 대학에서 진로결정이 직업선택과 취업으로 연결되고,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는 현실에서 대학생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최근 한국 사회의 대학생 중도탈락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 알리미 사이트에 의하면 2015년 대학 중도탈락 비율은 4년제 대학의 경우 7.4%으로 2014년 6.38%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지방대학보다 서울권대학에서 학생들의 이탈 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중등학교의 탈락률이 1.0% 내외라는 것을 고려할 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이러한 수치는 현재 대학생의 고등교육 이탈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다(연보라, 장희원, 2015).

중도탈락은 일반적으로 대학 재학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지속과는 반대되는 의미이다(연보라, 정희원, 2015).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환경을 참고하여 생각하면 대학의 생존을 위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입학 자원의 확보가 매우 귀중하다(박은선, 김광현, 2016). 대학의 입장에서 중도탈락은 대학재정 및 대학교육의 향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 내 학생들의 휴학, 자퇴 등 학생의 증가는 재학생 유지에 영향을 주어 대학 재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수연, 2006).

중도탈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 중도탈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사실상 대학을 벗어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힘들다. 또한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미리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하여 중도탈락 의도를 지닌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중도탈락의도를 가진 학생들에 대하여 원인을 해석하고 각 요인과의 관련성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의 중도탈락의도를 달라지게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박은선, 김광현, 2016).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공부해온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되어 많은 시간과 자유가 주어

지고 자신의 학습 활동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져도,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거나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공부와 거리를 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과 인지적, 동기적 측면과 관련한 전략들을 활용하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왕성하지 못하고 침체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고와 동기 및 행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Zimmerman, 1998, 재인용). 최경호(2010)는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요소인 인지, 동기, 행동조절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며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신장하는 작전이 필요함을 밝혔다. 류정희, 조발그니(2012)는 대학생의 자기관리기술, 주의 집중, 과제해결, 정보처리기술 등 학습기술이 대학생활적응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암시하였다.

이제 대학에서의 자율적 혁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고르고 조직하며 맞추어가는 자기조절학습 실력 양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초·중등학생들에 비해 더 자율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권재환, 김경희, 2013).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의 생존을 위해 만족도 향상과 입학자원의 확보가 간절하다. 중도탈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대학을 벗어나게 되므로 연구 및 조사가 어렵다. 중도탈락 의도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학습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활동에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전략을 개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내놓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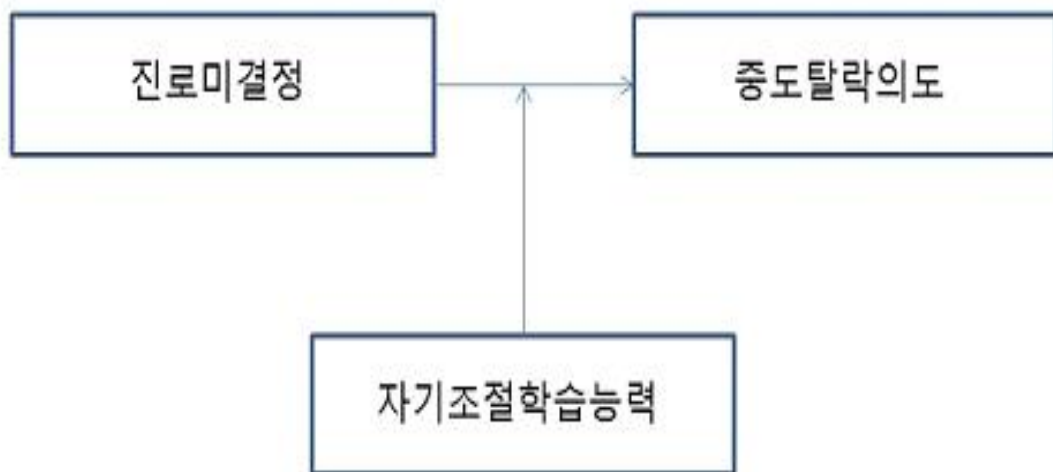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가설.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모형



<그림 I-1> 연구모형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진로미결정, 중도탈락의도,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하며(Crites, 1981),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능력이 없고 진로선택에 전념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재인용). 본 연구에서 진로미결정은 Tak과 Lee(200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진로미결정 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중 내적 장애에 속하는 직업정보 부족 요인,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 우유부단한 성격 요인, 필요성 인식 부족 요인에서 나온 점수결과를 의미한다.

2) 중도탈락의도

중도탈락은 휴학 및 제적 자퇴 등으로 일시적 혹은 영원히 학교를 떠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수연, 2006). 실제로 학교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중도탈락의 위험요소를 지니면서 학교생활에 의미와 흥미를 잃고 매우 소극적인 수행을 보이며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잠재적 중도탈락자라고 한다(양경화, 2005). 잠재적 중도탈락자들처럼 대학에 다니고는 있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경험이 중도탈락의도이다. 본 연구에서 중도탈락의도는 구자경, 홍진영과 장유진(2001)이 자퇴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측정된 점수 결과를 의미한다.

3)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고와 동기 및 행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Zimmerman, 199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능동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동기와 인지 및 행동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실행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Zimmerman, 1989; Zimmerman & Martinez-Pons, 1988, 재인용).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진로미결정

개인의 생애에 있어 진로선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대학생들에게 진로문제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더욱 절실하고 구체적인 과제이다(Super, 1990). 또 이 시기의 진로미결정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진로계획 및 취업준비까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Kelly, & Lee, 2002, 재인용). 더욱이 대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49.1%가 아직 진로 결정을 하지 못했으며(이상준, 정윤경, 김규상, 2009),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문제라고 호소하고 있어(김은진, 천성문, 2001;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12;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0) 진로미결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Crites, 1981), Tokar 등(2003)은 진로미결정을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일회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 진행되는 선택과 결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Phillips, & Paziienza, 1988; Super, 1990, 재인용). 즉, 한 번 진로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진로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며 그 이전 시

기까지 형성된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이 해당시기의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분야는 오랫동안 진로발달 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이며 (Lucas, 1993)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진로미결정의 정의와 특성은 아직 많은 논의가 남아 있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박수길, 2001; 이해성, 홍혜경, 1998; Saunders et al., 2000). 이러한 진로미결정의 연구는 크게 미결정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려는 유형에 대한 연구와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차원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김봉환, 1997).

유형에 대한 연구는 미결정된 개인들을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를 위해 이러한 분류를 활용하는 것이다(Fuqua, & Hartman, 1983; 김봉환, 김계현, 1997). 초기에 진로미결정은 결정과 미결정의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Holland, & Holland, 1977)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로미결정이 개인마다 서로 다른 양상과 원인을 가진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임을 밝히고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Gordom, & Meyer, 2002, 재인용) 진로미결정과 정서 및 성격적인 특성과 연결시켜 진로미결정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연구도 있다(Saka, Gati, & Kelly, 2008, 재인용). 또 미결정자 뿐만 아니라 결정자를 하위유형으로 분류하려는 연구동향도 나타나고 있다(유지선, 2004).

국내에서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함께 측정되어 군집분석을 통해 하위유형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송지은과 이정윤(2013)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미결정형, 전통적 여성형, 동기 부족형, 만성적 우유부단형, 내적 갈등형의 5개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 요인이 각각의 유형을 구분해 주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밝혔다. 그 외에도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진로미결정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배종훈, 2001; 장선철, 2004).

차원에 대한 연구는 진로미결정의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진로미결정이 무엇이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주로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측정도구의 요인분석을 통

해 진로미결정의 차원이 되는 원인 혹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 1976; Shimizu, Vondracek, Schulenberg, & Hostetler, 1988, 재인용).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측정도구로 진로미결정의 기저에 깔려 있는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미결정의 복합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연구를 통한 진로미결정 상태에 대한 합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에서도 김봉환과 김계현(1995)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진로미결정의 복합성과 명확한 정의를 탐구하는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국내 연구에 의하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성별, 학년 등의 개인배경 변인(이기학, 한종철, 1998), 완벽주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박정희, 이은희, 2008; 유지선, 2004; 홍혜영, 안혜선, 2009)과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 등과 같은 맥락적 변인(김은영, 2007; 박현주, 김봉환, 2006)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진로미결정요인으로는 성격적인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확인되는데 박정희와 이은희(2008)는 자아정체성, 불안, 우울, 강박증 등과 같은 심리적·성격적 특성이 청소년의 미결정을 촉발하며 그 중에서도 자아정체성이 진로미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또 불안 및 우울 강박증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으며 자기통제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다.

최근에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에 대한 연구로서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는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이 포함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함께 묶어 진로장벽으로 보는 것은 이들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개별적인 경로와 영향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재인용). 따라서 최근에는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의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미나, 박재황, 2011; 유나현, 이기학, 2009). 특히 내적 진로장벽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개인의 지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며, 고미나와 박재황(2011)은 내적 진로장벽(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만이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고, 외적 진로장벽(물리적 제약, 사회적 영향, 차별 대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중 내적 미결정 요인에 속하는 변인만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중도탈락의도

중도탈락이란 일반적으로 대학 중도탈락은 대학 교육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Garrison(1985, 1987, 재인용)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중도탈락을 학습자가 중도에 의도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백은주 외(2015), 이병식(2003)의 연구에서는 학생이 재학 중이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소속을 중단, 휴학, 제적,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정의하고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을 같은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중등교육에서는 교육부가 2002년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중도탈락 대신 학업중단으로 용어가 대부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서는 중도탈락 및 학업중단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의미도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Spady(1970), 연보라와 장희원(2016)의 경우에는 중도탈락을 한 대학에서의 탈락이 아니라 고등교육 체제로부터의 탈락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즉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은 다른 것이며 편입학과 같은 학교이동은 중도탈락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박은주와 이혜경(2016)의 연구에서도 중도탈락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 학업중단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의 관점으로 정의하고 최근 학생들의 등록연기나 자퇴 등을 학업중단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김수연(2006)은 학칙에서 규정하는 학생변동의 관점에서 군휴학을 제외한 휴학과 퇴학, 제적을 모두 중도탈락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노혜

란과 최미나(200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을 모두 중도탈락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학 중도탈락의 정의가 연구에 따라 다른 이유는 중도탈락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의 최종적인 중도탈락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편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학업중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학교이동 유무는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며, 고등교육 체제로부터 탈락한 경우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을 학업중단과 같은 것으로 보고, 김수연(2006), 노혜란과 최미나(2008)의 관점과 유사하게 한 교육기관을 이탈하게 되는 편입, 군휴학을 제외한 휴학, 자퇴 등을 중도탈락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이 학령인구의 감소로 각 대학이 구조조정에 직면에 있는 현실에서 대학의 학생유지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각종 대학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각 대학의 중도탈락학생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대학이 학문의 기능 및 취업의 기능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중도탈락이 심화되는 시점에 관련 대책 마련 차원에서 중도탈락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3.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SRL)

1)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개념 및 구성요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고와 동기 및 행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Zimmerman, 199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능동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자신의 동기와 인지 및 행동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실행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Zimmerman, 1989; Zimmerman & Martinez-Pons, 1988, 재인용).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표 II-1>과 같이 연구자별로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이란 학습자가 인지, 정서, 행동 수준의 학습 활동을 자기 스스로 계획, 촉진, 유지 및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표 II-1>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개념

연구자	개념
박승호(2003)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실행과정에서 자신의 인지, 동기 및 행동을 모니터링, 조절, 통제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과정
양명희(2000)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
정미경(1999)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의 주인이 되어 학습목표와 학습동기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기 학습
허은영(2009)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상황에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과정
Johnson & Davies(2015)	요구된 과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개발하고 과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략을 이행하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전략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들
Loyens, Magda, & Rikers(2008)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규명하는 동시에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 사용하며 학습의 결과를 점검·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Pintrich(2000)	학습자의 인지, 동기, 정서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환경자원에 대한 통제, 외현적 행동조절, 학습환경의 활용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개념
Willem 등(2006)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수로 구성되는 능력 체계
Zimmerman (2008)	설정된 학습목표를 성취하거나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인지적 측면, 동기·정서적 측면, 전략적 행동측면에서 조절하는 능력

* 출처 : 이해화, 2016: 27 참조

2)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구성요인은 여러 학자에 따라 달리 제시되고 있다. <표 II-2>에서 제시된 구성요인을 종합하면 정서조절, 인지조절, 행동 및 관계 조절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서조절 요인은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불안에 대한 처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지조절 요인은 학습자가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실제적인 인지, 초인지 전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동 및 관계 조절 요인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학습 환경을 선택하고, 구조화하며, 타인과의 지원 및 협업 등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미경, 2005).

<표 II-2>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구성요인

연구자	정서조절	인지조절	행동 및 관계조절
박병기, 정기수, 김선미, 이종욱 (2005)	효능고양, 흥미유지, 경계유지, 과제가치, 정서관리	인지조절(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조절(계획, 점검, 조절)	공부시작, 공부지속, 시험준비, 긴장이완, 공간관리
양명희(2000)	숙달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인지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 메타인지전략(계획, 점검, 조절)	행동통제, 학업시간의 관리, 도움구하기
정미경(2005)	자기효능감, 내재적가치, 시험불안, 외현적 목표지향	인지 전략, 시연과 기억, 점검, 계획	시간과 공부 조절, 공부환경 조절, 노력 조절, 조력추구 전략
Baumert, Fend, O'Neil, & Peschar(1998)	동기유발, 목표지향성, 자아개념	학습전략	행동통제전략, 사회적 능력, 학습 잠재력
Pintrich(2000)	내적지향, 과제의 중요성, 성공에 대한 기대	인지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 메타인지전략(점검, 조절, 계획)	시간관리, 환경관리, 노력조절, 타인의 도움구하기
Zimmerman (2008)	자기동기신념, 자기반응	작업분석, 자기판단	자기통제, 자기관찰

* 출처 : 이해화, 2016: 28 참조

4. 변인들 간의 관계

1)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특히 대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업적응을 30%정도 설명한다(장경문, 2005). 강승호(2010)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최대 고민은 진로선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탈락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미결정이 중도탈락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김명정, 김남연, 임정인, 2016; 형정은, 김정섭, 2016).

2)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

최경호(2010)는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요소인 인지, 동기, 행동조절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며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신장하는 작전이 필요함을 밝혔다. 류정희, 조발그니(2012)는 대학생의 자기관리기술, 주의집중, 과제해결, 정보처리기술 등 학습기술이 대학생활적응을 높인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교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중도탈락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교 1~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831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로미결정, 중도탈락의도,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협조 승낙을 받은 교수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연구자를 대신하여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수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총 831부의 설문지 중 681부가 회수되어 82%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675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어 자료 유효율은 81.2%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변인이 환경적인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의 개인내적, 심리적인 변인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및 분포는 <표 III-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은 338명(50.1%), 남성은 337명(49.9%)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대는 18~20세 231명(34.2%), 21~24세 408명(60.4%), 25세 이상 36명(5.3%)순으로 나타나 21~24세가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106명(15.7%), 2학년이 224명(33.2%), 3학년이 240명(35.6%), 4학년이 105명(15.6%)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은 정시모집 488명(72.3%), 수시모집 187명(27.7%)으로 정시모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학 입학시 희망학과로 진학은 464명(68.7%), 그렇지 않은 경우는 211명(31.3%) 나타났다. 대학 입학할 당시 진로미결정은 352명(52.1%)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은 323명(47.9%)으로 기타 378명(56.0%), 취업 191명(28.3%), 진학 106명(15.7%) 순이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인관계 272명(40.3%), 취업준비 196명(29.0%), 학업 154명(22.8%), 기타 38명(5.6%), 이성교제 15명(2.2%)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내신등급은 1등급 26명(3.9%), 2등급 125명(18.5%), 3등급 230명(34.1%), 4등급 199명(29.5%), 5등급 57명(8.4%), 6등급 25명(3.7%), 7등급 6명(0.9%), 8등급 2명(0.3%), 9등급 5명(0.7%)로 나타났고, 직전학기 평점은 A학점 203명(30.1%), B학점 395명(58.5%), C학점 63명(9.3%), D학점이하 14명(2.1%)이다. 소속 단과대학은 인문대학 113명(16.7%), 사회과학대학 59명(8.7%), 경상대학 104명(15.4%), 사범대학 67명(9.9%), 생명자원과학대학 49명(7.3%), 해양과학대학 37명(5.5%), 자연과학대학 89명(13.2%), 공과대학 109명(16.1%), 의과대학 16명(2.4%), 간호대학 1명(0.1%), 예술디자인대학 31명(4.6%)으로 나타났다. 자퇴 계획 없다는 응답자는 613명(90.8%), 있다는 응답자는 62명(9.2%)로 나타났고, 자퇴이유로는 기타는 638명(94.5%),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족 16명(2.4%), 대학 교육 포기 10명(1.5%), 타 대학 편입 5명(0.7%), 취업하기 어려움 5명(0.7%), 건강이 좋지 않아서 1명(0.1%)로 나타났다.

<표 III-1>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및 분포 (N=675)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337	49.9
	여	338	50.1
나이	18세~20세	231	34.2
	21세~24세	408	60.4
	25세이상	36	5.3
학년	1학년	106	15.7
	2학년	224	33.2
	3학년	240	35.6
	4학년	105	15.6
입학유형	수시모집	187	27.7
	정시모집	488	72.3
희망학과	예	464	68.7
	아니오	211	31.3
진로결정	예	323	47.9
	아니오	352	52.1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진로내용	진학	106	15.7
	취업	191	28.3
	기타	378	56.0
대학생활중요	학업	154	22.8
	대인관계	272	40.3
	취업준비	196	29.0
	이성교제	15	2.2
	기타	38	5.6
고교내신	1등급	26	3.9
	2등급	125	18.5
	3등급	230	34.1
	4등급	199	29.5
	5등급	57	8.4
	6등급	25	3.7
	7등급	6	.9
	8등급	2	.3
	9등급	5	.7
직전학점	A학점	203	30.1
	B학점	395	58.5
	C학점	63	9.3
	D학점이하	14	2.1
소속대학	인문대학	113	16.7
	사회과학대학	59	8.7
	경상대학	104	15.4
	사범대학	67	9.9
	생명자원과학대학	49	7.3
	해양과학대학	37	5.5
	자연과학대학	89	13.2
	공과대학	109	16.1
	수의과대학	16	2.4
	간호대학	1	.1
예술디자인대학	31	4.6	
자퇴계획	있다	62	9.2
	없다	613	90.8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자퇴이유	건강이 좋지 않아서	1	.1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족	16	2.4
	타 대학 편입	5	.7
	대학 교육 포기	10	1.5
	취업하기 어려움	5	.7
	기타	638	94.5

2. 측정 도구

1) 진로미결정 척도

대학생들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Tak과 Lee(2003)가 개발한 한국진로미결정 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 한국진로미결정척도는 5개 하위요인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충분한 직업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직업정보부족 요인 6문항(예를 들면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 4문항(예,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개인적인 성격특성에 기인하여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우유부단한 성격 요인 4문항(예,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아직까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선택을 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필요성 인식 부족 요인 4문항(예,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나 주변 사람의 기대와의 갈등 혹은 사회적인 요구조건과의 불일치 때문에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외적 장애요인 4문항(예,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이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로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등의 개인 내적 변인에는 내적 진로장벽만이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Gottfredson, 1981; Luzzo, 1996; Creed et al., 2004; 고미나, 박재황, 2011) 외적장애요인의 4문항을 제외한 1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Tak과 Lee(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6~.8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4~.928이었다.

<표 III-2> 진로미결정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N=675)

상위요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진로미결정	직업정보부족	1,2,3,4,5,6	6	.899
	자기명확성부족	7,8,9,10	4	.916
	우유부단한 성격	11,12,13,14	4	.854
	필요성 인식 부족	15,16,17,18,	4	.868
전체			18	.928

2) 중도탈락의도 척도

중도탈락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자경 등(2001) 이 자퇴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퇴욕구질문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의 문항(예, 학교를 그만두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과 학교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의 문항(예, 언제 학교를 그만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자경 등(2001)의 연구에

서 자퇴욕구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자퇴욕구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탈락의도 척도의 구성 및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III-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3> 중도탈락의도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N=675)

상위요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중도탈락의도	자퇴마음측정	1,2,4,6	4	.881
	자퇴구체성측정	3,5,7,8	4	.891
	전체		8	.938

3)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정미경(200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용 총 88문항의 '자기조절학습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조절학습 척도의 하위요인은 크게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동기조절(자기효능감, 외현적 목표지향, 내재적 가치, 시험불안) 32문항, 인지조절(인지전략, 점검, 계획, 시연과 기억) 31문항, 행동조절(시간과 공부조절, 노력조절, 조력추구 전략, 공부환경 조절) 25문항이다. 세부 문항으로는 '나는 어려운 과제라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나는 공부할 때 교재, 노트를 읽고 또 읽는다.', '나는 강의 중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한다.' 등이 있다.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5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퇴욕구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자기조절학습능력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N=675)

상위요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조절학습능력	동기조절	1 ~ 32	32	.908
	인지조절	33 ~ 63	31	.942
	행동조절	64 ~ 88	25	.929
	전체		88	.967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18.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 및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를 검증하였다.

셋째, 진로미결정 및 그 하위변인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그 하위변인들 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및 상호작용값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개별 원점수들을 편차점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진로미결정, 중도탈락의도,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IV-5>와 같다.

진로미결정에 해당하는 하위변인은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부족이다. 하위변인들의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직업정보부족(M=2.76)과 자기명확성부족(M=2.78), 우유부단한 성격(M=2.85)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 변인들의 값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진로미결정 유형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도탈락의도에 해당하는 하위변인은 자퇴마음, 자퇴구체성이다. 하위변인들의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퇴마음(M=2.57), 자퇴구체성(M=2.12)이다. 자퇴마음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고, 자퇴구체성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해당하는 하위변인은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이다. 하위변인은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기조절(M=3.21), 인지조절(M=3.43), 행동조절(M=3.30)이다. 인지조절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고 동기조절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표 IV-5> 특정변인의 기술 통계량

(N=675)

	평균(M)	표준편차(SE)	사례수(N)
직업정보부족	2.76	.856	675
자기명확성부족	2.78	1.029	675
우유부단한성격	2.85	.921	675
필요성인식부족	2.14	.853	675
진로미결정 전체	2.64	.722	675
자퇴마음	2.57	1.081	675
자퇴구체성	2.12	.965	675
중도탈락의도 전체	2.34	.990	675
동기조절	3.21	.467	675
인지조절	3.43	.527	675
행동조절	3.30	.568	675
자기조절학습능력 전체	3.31	.460	675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진로미결정과 그 하위변인인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한 성격과 필요성인식부족, 중도탈락의도와 그 하위변인인 자퇴마음, 자퇴구체성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간 상관계수

(N=675)

변인	A	B	C	D	E	F	G	H	I
직업정보 부족(A)	1								
자기명확 성부족(B)	.640***	1							
우유부단 성격(C)	.565***	.623***	1						
필요성인 식부족(D)	.369***	.392***	.351***	1					
진로미결정 전체(E)	.856***	.850***	.797***	.633***	1				
자퇴 마음(F)	.188***	.262***	.236***	.183***	.272***	1			
자퇴 구체성(G)	.178***	.282***	.255***	.228***	.292***	.875***	1		
중도탈락 의도전체(H)	.189***	.280***	.253***	.211***	.291***	.972***	.964***	1	
조절능력(I)	-.256***	-.259***	-.262***	-.200***	-.310***	-.284***	-.305***	-.304***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미결정 전체와 중도탈락 의도 전체 ($r=.291$)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다.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 중 직업정보부족은 중도탈락의도 전체($r=.189$)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직업정보부족과 중도탈락 의도의 하위변인 중 자퇴마음($r=.188$), 자퇴구체성($r=.178$)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 중 자기명확성부족은 중도탈락 의도 전체($r=.280$)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명확성부족과 중도탈락 의도의 하위변인 중 자퇴마음($r=.262$), 자퇴구체성($r=.282$)은 낮은 상관을 보였다.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 중

우유부단한 성격은 중도탈락 의도 전체($r=.253$)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우유부단한 성격은 중도탈락 의도의 하위변인 중 자퇴마음($r=.236$), 자퇴구체성($r=.255$)과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다.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 중 필요성인식부족은 중도탈락 의도 전체($r=.211$)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약한 상관을 보였으며, 필요성인식부족과 중도탈락 의도의 하위변인 중 자퇴마음($r=.183$), 자퇴구체성($r=.228$)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중도탈락의도 전체와 중도탈락의도의 하위변인 중 자퇴마음($r=.972$), 자퇴구체성($r=.964$)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진로미결정 전체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미결정 전체($r=-.310$)에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 중 직업정보부족($r=-.256$), 자기명확성부족($r=-.259$), 우유부단한 성격($r=-.262$), 필요성인식부족($r=-.200$)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다소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중도탈락의도 전체($r=-.304$)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중도탈락 의도의 하위변인 중 자퇴마음($r=-.284$), 자퇴구체성($r=-.305$)에 다소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3.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연구문제인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조절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두 번째로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세 번째로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네 번째로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우유부단한 성격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다섯 번째로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인 필요성 인식부족

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순으로 살펴보았다.

1)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78로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 사이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에 제시하였다.

<표 IV-7>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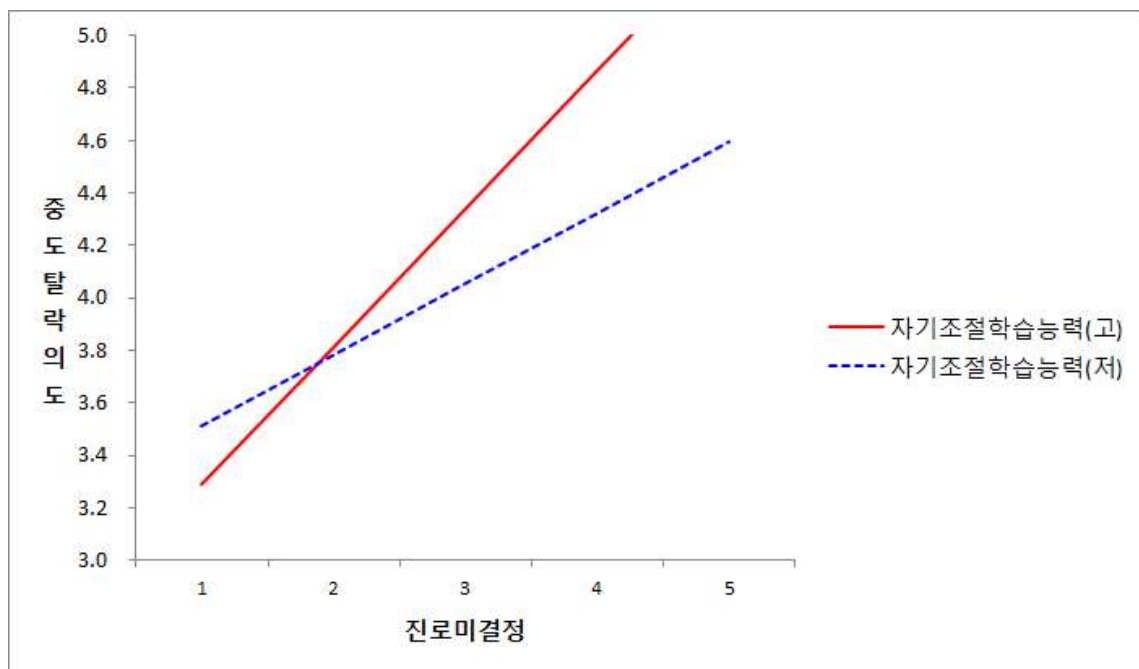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진로미결정	.399	.291***	.085	.085
2	진로미결정	.299	.218***	.135	.050
	자기조절학습능력	-.508	-.236***		
3	진로미결정(A)	.271	.198***	.145	.010
	자기조절학습능력(B)	-.480	-.223***		
	상호작용항(A*B)	.256	.103*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분석에서 진로미결정($\beta=.291$, $p < .001$)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진로미결정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도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진로미결정이 중도탈락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8.5%이다. 2단계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진로미결정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beta=.218$, $p < .001$),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부(-)의 영향($\beta=-.236$, $p < .001$)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5.0%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p < .001$) 전체 설명력은 13.5%이다. 3단계는 2단계 회귀식에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것으로, 상호작용항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103, p < .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1.0%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4.5%를 보이고 있다.

조절변인의 집단별 조절형태를 살펴보기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IV-2>와 같다. 제시된 <그림 IV-2>를 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을 비교했을 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면 중도탈락의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로미결정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2>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2)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82로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정보 부족과 중도탈락의도 사이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8>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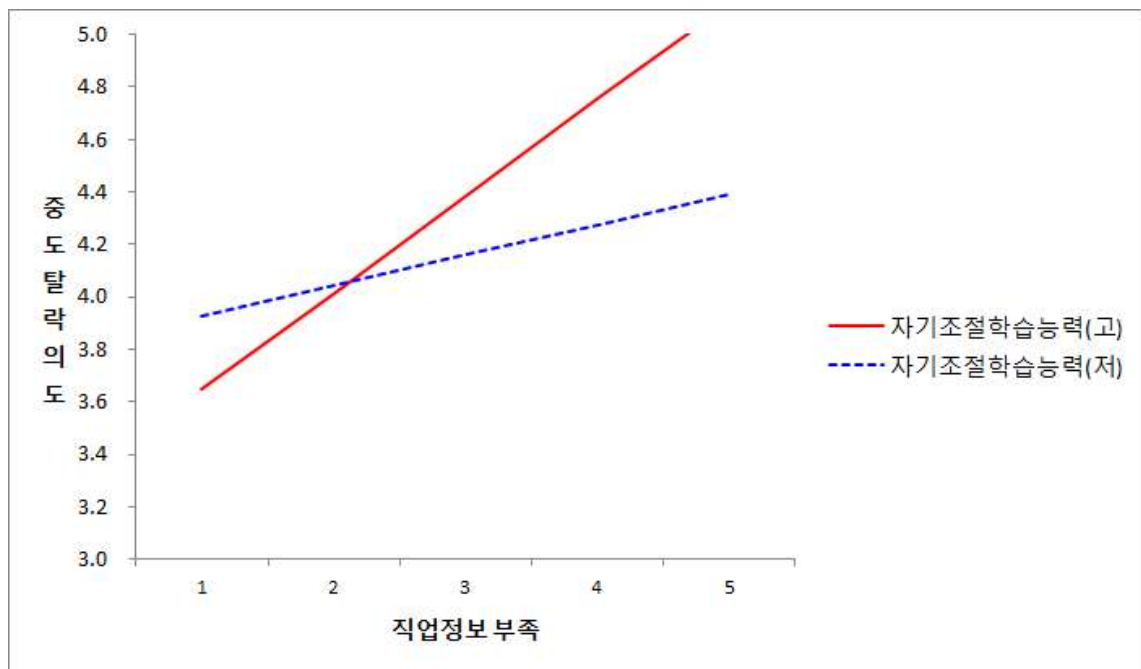
<표 IV-8> 직업정보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직업정보 부족	.219	.189***	.036	.036
2	직업정보 부족	.138	.119***	.105	.070
	자기조절학습능력	-.587	-.273***		
3	직업정보 부족(A)	.116	.100***	.118	.012
	자기조절학습능력(B)	-.533	-.248***		
	상호작용항(A*B)	.253	.116*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분석에서 직업정보 부족($\beta = .189$, $p < .001$)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직업정보 부족이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도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직업정보 부족이 중도탈락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6%이다. 2단계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직업정보부족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beta = .119$, $p < .001$),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부(-)의 영향($\beta = -.273$, $p < .001$)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7.0%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0.5%이다. 3단계는 2단계 회귀식에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것으로, 상호작용항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116$, $p < .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1.2%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1.8%를 보이고 있다.

조절변인의 집단별 조절형태를 살펴보기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IV-3>와 같다. 제시된 <그림 IV-3>를 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을 비교했을 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직업정보 부족이 높아지면 중도탈락의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정보 부족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3> 직업정보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3)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자기명확성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82로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명확성 부족과 중도탈락의도 사이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9>에 제시하였다.

<표 IV-9> 자기명확성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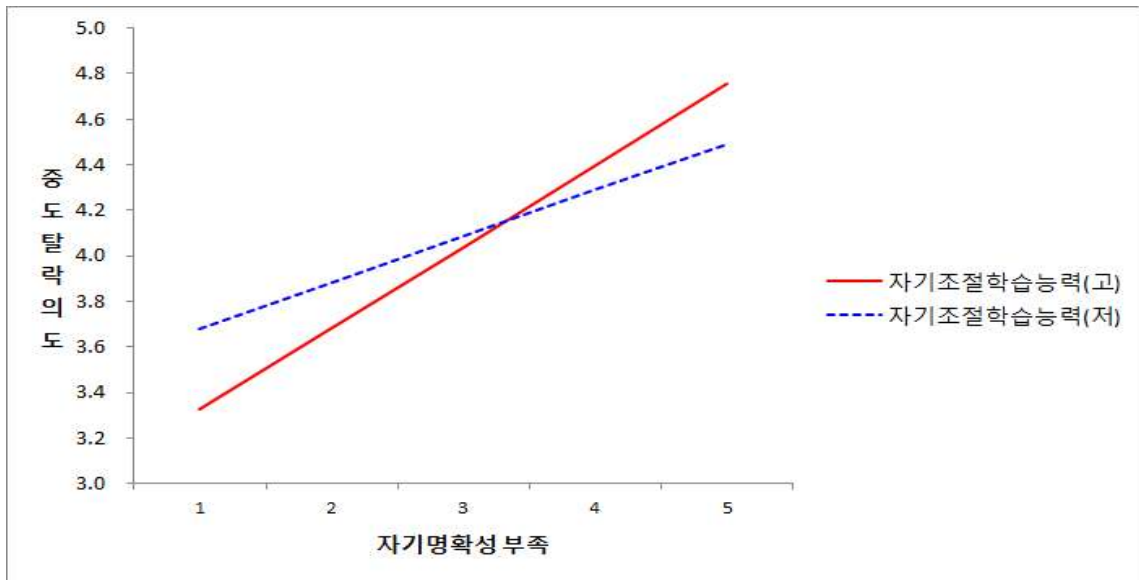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자기명확성 부족	.270	.280***	.079	.079
2	자기명확성 부족	.208	.216***	.136	.057
	자기조절학습능력	-.532	-.247***		
3	자기명확성 부족(A)	.203	.211***	.142	.007
	자기조절학습능력(B)	-.508	-.236***		
	상호작용항(A*B)	.154	.082*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분석에서 자기명확성 부족($\beta = .280, p < .001$)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기명확성 부족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도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자기명확성 부족이 중도탈락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7.9%이다. 2단계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자기명확성 부족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beta = .216, p < .001$),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부(-)의 영향($\beta = -.247, p < .001$)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5.7%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3.6%이다. 3단계는 2단계 회귀식에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것으로, 상호작용항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082, p < .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0.7%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4.2%를 보이고 있다.

조절변인의 집단별 조절형태를 살펴보기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IV-4>와 같다. 제시된 <그림 IV-4>를 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을 비교했을 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자기명확성 부족

이 높아지면 중도탈락의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기명확성 부족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4> 자기명확성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4)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우유부단한 성격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819로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유부단한 성격과 중도탈락의도 사이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0>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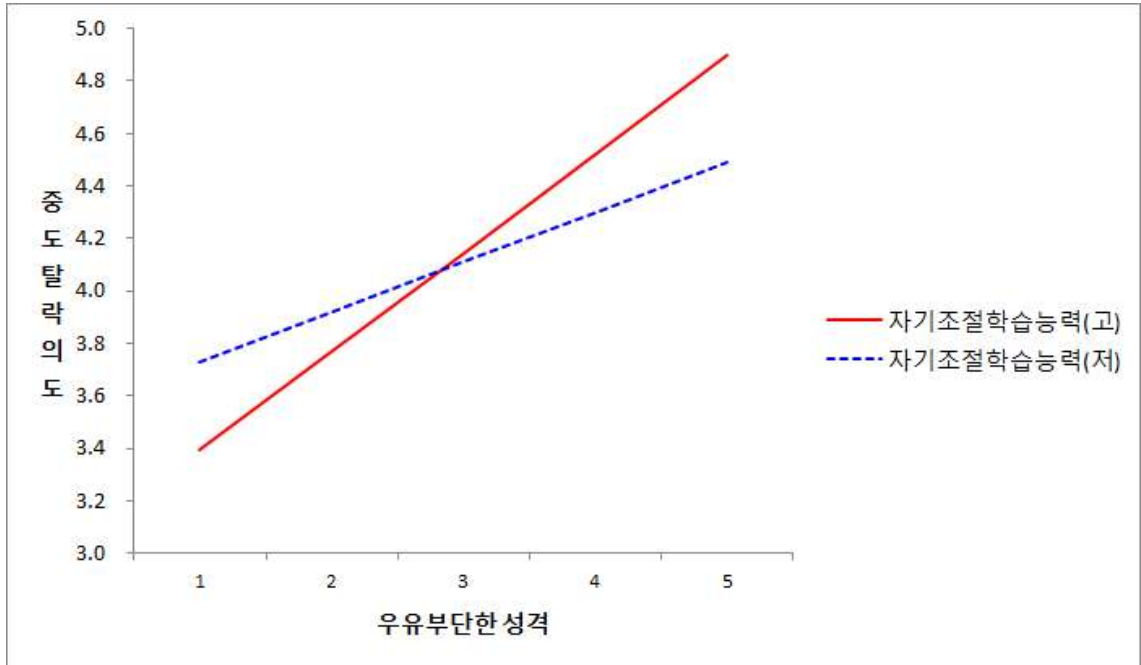
<표 IV-10> 우유부단한 성격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우유부단한 성격	.272	.253***	.064	.064
2	우유부단한 성격	.200	.186***	.124	.060
	자기조절학습능력	-.548	-.255***		
3	우유부단한 성격(A)	.190	.177***	.132	.008
	자기조절학습능력(B)	-.519	-.241***		
	상호작용항(A*B)	.185	.089*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분석에서 우유부단한 성격($\beta = .253$, $p < .001$)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도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우유부단한 성격이 중도탈락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6.4%이다. 2단계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우유부단한 성격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beta = .186$, $p < .001$),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부(-)의 영향($\beta = -.255$, $p < .001$)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6.0%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2.4%이다. 3단계는 2단계 회귀식에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것으로, 상호작용항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089$, $p < .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0.8%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3.2%를 보이고 있다.

조절변인의 집단별 조절형태를 살펴보기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IV-5>와 같다. 제시된 <그림 IV-5>를 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을 비교했을 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높아지면 중도탈락의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유부단한 성격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5> 우유부단한 성격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5)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필요성인식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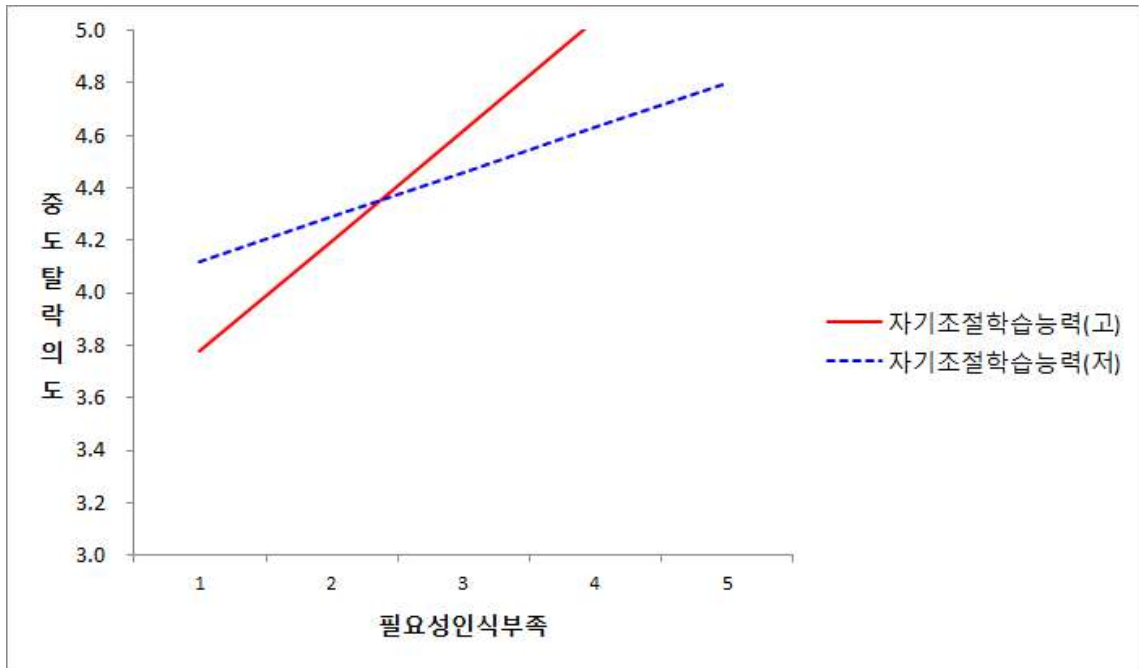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63로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요성인식 부족과 중도탈락의도 사이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에 제시하였다.

<표 IV-11> 필요성인식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필요성인식 부족	.245	.211***	.045	.045
2	필요성인식 부족	.182	.157***	.116	.071
	자기조절학습능력	-.586	-.272***		
3	필요성인식 부족(A)	.171	.147***	.129	.013
	자기조절학습능력(B)	-.589	-.274***		
	상호작용항(A*B)	.249	.114*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분석에서 필요성인식 부족($\beta = .211$, $p < .001$)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필요성인식 부족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도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필요성인식 부족이 중도탈락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5%이다. 2단계분석에서 독립변인인 필요성인식 부족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beta = .157$, $p < .001$),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부(-)의 영향($\beta = -.272$, $p < .001$)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7.1%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1.6%이다. 3단계는 2단계 회귀식에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것으로, 상호작용항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114$, $p < .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1.3%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2.9%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6> 필요성인식 부족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조절변인의 집단별 조절형태를 살펴보기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IV-6>와 같다. 제시된 <그림 IV-6>를 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을 비교했을 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필요성인식 부족이 높아지면 중도탈락의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필요성인식 부족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학습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자기조절학습능력, 중도탈락의도의 변인간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진로미결정 전체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은 중도탈락의도에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진로미결정 전체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에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중도탈락의도 전체와 중도탈락의도의 하위요인에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미결정이 중도탈락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명정, 김남연, 임정인, 2016; 형정은, 김정섭, 2016)와 같이 진로미결정이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공의 적성·진로 일치, 학교와 전공에 대한 목표의식 명확성이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성식, 2007; 노혜란, 최미나, 2008; 최명선, 강지희, 2008; 형정은, 김정섭, 2016)와 같이 학교와 전공에 대한 목표의식 명확성이 대학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중도탈락자는 과거와 달리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목표의식이 명확한 학생이라는 선행연구(박은주, 이해경, 2016)와 같이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목표의식이 명확한 학생이 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미결정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

요성인식 부족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유평, 2011; 윤채영, 이종화, 김정섭, 2011; 최경호, 2010)와 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학습기술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류정희, 조발그니, 2012)의 연구와 같이 다양한 학습기술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일수록, 직업정보 부족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명확성 부족이 높은 학생일수록, 우유부단한 성격이 높은 학생일수록, 필요성인식 부족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조절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도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로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중도탈락의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교수역량 및 학습력제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소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미리 대처하거나 막기 위하여 중도탈락의도를 가진 학생들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그들의 중도탈락의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 정원 미달 현상의 심화로 인해, 기초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주는 전공의 적성과 진로의 불일치, 낮은 취업 전망 등은 교과과정만으로는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어렵기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규모로 다양한 주제가 적합한데, 이는 편입이나 휴학, 자퇴 등 어떤 중도탈락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원인도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우선은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전략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교과 및 비교과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구성하며 조절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방법에 대한 지도와 함께 목표설정, 자기점검·자기평가·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습포트폴리오 작성 지도, 학습동기의 향상, 시험 전략, 시간관리, 환경관리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생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상담제도와 이에 대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교수는 학생과 세대 차이도 크고,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담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한다. 상담제도를 통해 대학만족도와 진로 관련 요인의 수준 등을 높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 소재 국립대학교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대학 소재지에 따라 중도탈락의도는 달라질 수 있기에 연구의 대상을 거점 대학별, 지역별로 확대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진로미결정 척도는 진로미결정 중 내적 진로장벽(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에 속하는 변인만을 고려한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서 외적 진로장벽(물리적 제약, 사회적 영향, 차별 대우) 요인에 속하는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중도탈락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의 성별, 통학거리, 입학 성적, 나이 등과 같은 개인특성 요인을 반영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학교마다 처한 교육적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승호 (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9-53.
- 권재환, 김경희 (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5(1), 31-57.
- 고미나, 박재황 (2011).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0(4), 259-279.
- 구자경, 홍진영, 장유진 (2001). 청소년의 자퇴 욕구 실태와 관련 특성 연구.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1-54.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명정, 김남연, 임정인 (2016). 전문대 예비유아교사의 진로미결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도탈락의도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2), 47-67.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성식 (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227-249.
- 김수연 (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분석. **한국교육**, 33(4), 33-62.
- 김수영, 배성아 (2014).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2), 429-448.
- 김은영 (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이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지**,

- 4(1), 147-162.
- 김현심 (2009). **자기조절학습의 학년간 차이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남아란, 하정(2012).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진로미결정 및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27-43.
- 노혜란, 최미나 (2008).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인적자원개발연구**, 11(1), 89-107.
- 류정희, 조발그니 (2012). 학습기술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유능성, 가족의지지) 자기가치 수반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1-21.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6(1), 67-81.
- 박수길 (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은주, 이혜경 (2016).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K 전문대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46, 91-111.
- 박은선, 김광현 (2016). 학업중단요인 및 대학생활적응요인이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361-384.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박현주, 김봉환 (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19-439.
- 배중훈 (2001). 군집 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하위 유형의 탐색. **진로교육연구**, 14, 223-244.
- 백은주, 남민우, 이해듬 (2015).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중단 예측도구 타당화.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2), 233-260.
-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12). 학생생활연구 제28집. 부산: 부경대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0). 효과적인 대학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 생활 의견 조사 보고서: 2009년 8월 및 2010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송지은, 이정운(2013).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 연구. **상담학연구**, 14(4), 2107-2123.
- 양경화 (2005).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단기집단성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연보라, 장희원 (2015). 대학생의 중도탈락 시기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5(1), 129-155.
- 유나현, 이기학 (2009). 진로상담 :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0(4), 2241-2255.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평 (2011). **희망과 자기조절학습이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윤채영, 이종화, 김정섭(2011). 자기조절학습프로그램이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사고개발**, 7(2), 19-36.
-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67-189.
- 이병식 (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41(2), 135-154.
- 이상준, 정운경, 김규상 (2009). 진로정보센터 운영(2009): **진로교육지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애화 (2016). **전문대학생의 디지털역량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학습양식별 다중집단분석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혜성,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43-166.
- 장경문 (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185-196.
- 정미경 (2005). 대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도구 개발. **교육평가연구**, 18(3), 155-181.
- 장선철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33-551.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2008). 진로미결정 및 관련 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최경호 (2010). **전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기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분석**.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 최명선, 강지희 (2008). 대학생 중도탈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5(7), 203-225.
- 홍혜영, 안혜선 (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7), 149-175.
- 형정은, 김정섭 (2016). 전문대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중도탈락의도간의 구조관계 분석: 우울, 진로미결정,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23(7), 189-220.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2(1), 27-29.
- Garrison(1987). Researching drop-out in distance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8(1), 95-101.
- Garrison, D. R.(1985). *Status and trends of distance education*, Lund, Sweden: Lector Publishing.
- Kelly, K. R., & Lee, W. C. (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302-326.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D., Sheu, H., Schmidt, J., Brener, B. R., & Gloster, C. S.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cademic interests and goals in

- engineering: Utility for women and students at historically Black Univers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84-92.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Lucas, M. S., Skokowski, C. T., & Ancis, J. R. (2000). Contextual themes in career decision making of female clients who indicate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3), 316-325.
- Pintrich, P. (1989). The dynamic interplay of student motivation and cognition in the college classroom. In C. Ames & M. Maehr (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enhancing environments* (Vol. 6, 117-60). Greenwich, CT: JAI Press.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340-358.
- Schunk, D.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 Spady, W. G.(1970).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An interdisciplinary review and synthesis, *Interchange*, *1*(1), 64-85.
- Tak, J.,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okar, D. M., Withrow, J. R., Hall, D. J., & Moradi, B.(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19
- Zimmerman, B. J. & Schunk, D. H. (1989).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Y: Springer-Verlag.
- Zimmerman, B. J. (1998). Developing self-fulfilling cycles of academic regulation: Analysis of exemplary instructional model, In D. H. Schunk

& B. J. Zimmerman. (Eds.), *Self-regulated learning: From teaching to self-reflective practice* (pp. 1-19). New York: Guilford.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88). Construct validation of a strategy model of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84-290.

<Abstract>

A Study on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 College Students' Indecision on Career and Their Dropout Intention.

Ko, Young-Bok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or: Choi, Bo-You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 college students' indecision on career and their dropout intention and 2) to provide the baseline data to reduce dropout intention for career undecided students by improving self-regulating ability.

I surveyed Jeju National University 831 students from 1st grade to 4th grade Nov. 11 to Dec. 30, 2017 on the Career Indecision, Dropout Inten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The survey which consist of 'Career Indecision, Dropout Inten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demographic factors' was used for this study.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with SPSS for Windows 18.0.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 of overall data, the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which reviews outlier, normality and computed each variables'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In order to verify their credibility, the study reviewed Cronbach's α value along with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o find the relation among the variables. Finally, the study conducte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o find the regul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betwee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and dropout intention.

The current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for students' career indecis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dropout intention variables shows that they all have the meaningful relations. All career indecision and its sub-factors have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dropout inten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has negative (-) correlation between all career indecision and sub-factors of career indecision, all dropout intention and its sub-factors.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tudents' career indecision and their dropout intention shows the following: First,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has the positive (+) effect on the career indecision and dropout intention. Seco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has the positive (+)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lack of job information and dropout intention.' Thir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has the positive (+)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lack of self-certainty and dropout intention. Fourth,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has the positive (+)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indecisive character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ifth,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has the positive (+) effect to the relation between lack of necessity recognition' i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and dropout intention.

To sum up,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indeci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dropout intention. Also, self-regulated learning effect

functions as a moderator variable i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and dropout intention. As a result, the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learning methods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 order to decrease dropout intention. Also, this study can be used as a useful data in developing and applying programs in university curriculums which lead to improve students' academic strategy.

Key Words : Career Indecision, Dropout Inten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대학의 학생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로만 사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라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또는 “○”) 해 주십시오

본 설문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현재 자신에게 비추어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 11.

연구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고 영 복
지도교수: 최 보 영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 또는 “○”로 표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해 보았다	1	2	3	4	5
2	언제 학교를 그만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1	2	3	4	5
3	주위 사람들한테 학교를 그만두려고 한다는 것을 말할까 생각했다	1	2	3	4	5
4	학교를 그만두어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1	2	3	4	5
5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1	2	3	4	5
6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보았다	1	2	3	4	5
7	학교를 그만두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1	2	3	4	5
8	학교를 그만둘 때 담당교수와 친구들에게 할 말을 생각해 보았다	1	2	3	4	5

다음은 대학생의 진로 선택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 또는 “○”로 표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는 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2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	2	3	4	5
3	어떤 직업이 전망이나 보수가 좋고 사회의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다	1	2	3	4	5
4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1	2	3	4	5
5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지만 직업을 추구하는 방법 을 잘 모른다	1	2	3	4	5
6	어떤 직업이 나의 전공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	2	3	4	5
7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8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9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10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11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1	2	3	4	5
12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1	2	3	4	5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모든 문제에서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1	2	3	4	5
15	현재로서 직업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16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1	2	3	4	5
17	미래의 직업을 현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1	2	3	4	5
18	내 삶에서 일을 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학습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 또는 “○”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과 다른 학생에 비해 공부를 잘 한다	1	2	3	4	5
2	나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한다	1	2	3	4	5
3	나는 노력한 만큼 좋은 학점을 받는다	1	2	3	4	5
4	나는 우리 과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우수한 학생이다	1	2	3	4	5
5	나는 앞으로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과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공부 방법이 우수하다	1	2	3	4	5
7	나는 강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앞으로도 공부를 잘 할 것이다	1	2	3	4	5
9	나는 교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잘 해낸다	1	2	3	4	5
10	나는 교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1	2	3	4	5
11	나는 어려운 과제라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1	2	3	4	5
12	공부는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다	1	2	3	4	5
13	나는 많은 노력이 들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좋아한다	1	2	3	4	5
14	나는 공부하는 내용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1	2	3	4	5
15	나는 공부하는 내용이 흥미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1	2	3	4	5
16	나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대학생들이 내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살아가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9	나는 학교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20	나는 교수님의 말씀을 중요시한다	1	2	3	4	5
21	나는 교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알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2	나는 시험지를 보면 알 던 것도 생각이 안 난다	1	2	3	4	5
23	나는 시험 볼 때 허둥댄다	1	2	3	4	5
24	나는 시험 볼 때 긴장해서 답을 못 쓸 때가 있다	1	2	3	4	5
25	나는 시험 볼 때 잘 못 볼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26	나는 시험지를 받으면 몸이 굳어진다	1	2	3	4	5
27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때면 걱정된다	1	2	3	4	5
28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29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더 우수 하다는 것을 교수님께 보여 드리고 싶다	1	2	3	4	5
30	나는 교수님의 질문에 나 혼자만 대답하면 기쁘다	1	2	3	4	5
31	나는 다른 친구들 보다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	1	2	3	4	5
32	나는 학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3	나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공부할 때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4	나는 암기할 내용을 잘 아는 것과 연결해서 외운다	1	2	3	4	5
35	나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 이미 배운 내용과 관련 시켜 공부한다	1	2	3	4	5
36	나는 공부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들과 새로운 것이 어떤 관련 성이 있는지 찾아본다	1	2	3	4	5
37	나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 상해보면서 이해한다	1	2	3	4	5
38	나는 강의 내용을 실생활과 관련지어 공부한다	1	2	3	4	5
39	나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떠올려 본다	1	2	3	4	5
40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 공부할 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	1	2	3	4	5
41	나는 복잡한 내용을 공부할 때 그림이나 표로 작성해 본다	1	2	3	4	5
42	나는 독서 내용과 강의 내용을 연결시켜 봄으로써 강의내용을 이 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3	나는 공부할 때 개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관계를 정립 해 본다	1	2	3	4	5
44	나는 공부할 때 비슷한 내용을 관련시키거나 비교한 다	1	2	3	4	5
45	나는 어려운 내용은 내가 잘 아는 것과 관련시킨다	1	2	3	4	5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나는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곳에 표시를 한다	1	2	3	4	5
47	나는 공부할 때 교재, 노트, 참고자료의 내용을 맞추어 본다	1	2	3	4	5
48	나는 공부할 때 교재, 노트를 읽고 또 읽는다	1	2	3	4	5
49	나는 강의 중에 배운 내용들을 암기하려고 여러 번 외운다	1	2	3	4	5
50	나는 시험공부 할 때 노트에 필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	1	2	3	4	5
51	나는 공부할 때 새로운 것이 나오면 모두 외운다	1	2	3	4	5
52	나는 어떤 내용을 외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1	2	3	4	5
53	나는 글의 첫머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54	나는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할 지 미리 생각해 본다	1	2	3	4	5
55	나는 책을 읽는 도중에 혼돈이 생기면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정리해본다	1	2	3	4	5
56	나는 책을 읽을 때 어떤 문장의 뜻을 모르면 앞뒤 문장을 통해 그 문장의 뜻을 생각한다	1	2	3	4	5
57	나는 글을 쓸 때, 잠시 멈추고 내가 쓴 글을 검토한다	1	2	3	4	5
58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을 읽어보고 다시 고친다	1	2	3	4	5
59	나는 독서할 때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미리 질문해본다	1	2	3	4	5
60	나는 글쓰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61	나는 글쓰기 전에, 글 쓰는 목적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본다	1	2	3	4	5
62	나는 책 읽기 전에 그것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질문해본다	1	2	3	4	5
63	나는 책 읽기 전에 왜 읽어야 하는지 생각한 후 읽는다	1	2	3	4	5
64	나는 공부할 내용이 재미없어도 끝까지 공부한다	1	2	3	4	5
65	나는 학습과제가 주어지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한다	1	2	3	4	5
66	나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싫어하는 과목도 열심히 공부한다	1	2	3	4	5
67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1	2	3	4	5
68	나는 공부할 때, 최대한 열심히 한다	1	2	3	4	5
69	나는 공부할 내용이 재미없고 지루해도 끝까지 공부한다	1	2	3	4	5
70	나는 과제물을 정해진 시간까지 다 끝내 놓는다	1	2	3	4	5
71	나는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을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2	나는 공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2	3	4	5
73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워 공부한다	1	2	3	4	5
74	나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공부한다	1	2	3	4	5
75	나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1	2	3	4	5
76	나는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분명히 구분한다	1	2	3	4	5
77	나는 교수님이나 부모님께서 시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다	1	2	3	4	5
78	나는 고정적인 공부 장소가 있다	1	2	3	4	5
79	나는 여러 가지 보충자료들을 수집해서 공부한다	1	2	3	4	5
80	나는 강의 중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한다	1	2	3	4	5
81	나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1	2	3	4	5
82	나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관련 자료나 인터넷을 찾아본다	1	2	3	4	5
83	나는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는 교수님께 도움을 받는다	1	2	3	4	5
84	나는 학습자료가 필요하면 교수님께 도움을 구한다	1	2	3	4	5
85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돈한다	1	2	3	4	5
86	나는 필요한 책을 공부하기에 편리하도록 정돈한다	1	2	3	4	5
87	나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한다	1	2	3	4	5
88	나는 집중이 잘 안될 때 쉬운 과목이나 내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꾸어서 공부한다	1	2	3	4	5

※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 또는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나이 : 만()세
3.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모집시기별 입학유형 : ① 수시모집() ② 정시모집()
5. 대학 입학시 원하는 학과로 입학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6. 대학 입학할 당시 진로 결정 : ① 예() ② 아니오()

6-1. 진로를 결정하였다면 진로는 무엇인가요? ① 진학() ② 취업() ③ 기타()

7. 대학생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학업() ② 대인관계() ③ 취업준비() ④ 이성교제() ⑤ 기타()

8. 고등학교 때의 내신등급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6등급 ⑦ 7등급 ⑧ 8등급 ⑨ 9등급

9. 직전학기 평점은 무엇입니까?

① A학점() ② B학점() ③ C학점() ④ D학점 이하()

10. 소속 단과대학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대학() ② 사회과학대학() ③ 경상대학() ④ 사범대학() ⑤ 생명
자원과학대학() ⑥ 해양과학대학() ⑦ 자연과학대학() ⑧ 공과대학()
⑨ 수의과대학() ⑩ 간호대학() ⑪ 예술디자인대학()

11. 나는 자퇴 계획 ① 있다() ② 없다()

11-1. 자퇴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정 경제사정 여부() ②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③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족()
④ 타 대학 편입() ⑤ 대학 교육 포기() ⑥ 취업하기 어려움() ⑦ 기타()

마지막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